

로마서 8장 29-30절 (2)

- 읽을 말씀 롬 8:29-3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칼빈의 견인 교리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8장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양자 됨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해석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3) 하나님이 주신 초유의 해석에 대한 반론!

저는 29절의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양자 됨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양자 됨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많은 형제 중에서 말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둘 다 예정의 목적에 대해 쓴 것으로 그 의미가 겹쳐집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본받게”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성화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화를 포함할 수는 있어도 단지 성화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더글라스 무는 빌립보서 3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근거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미래인 재림 때 일어난다고 옳게 지적했습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에 사용된 헬라어 ‘**시모르포스**’는 “같은 모양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영화를 설명하며 사용한 “**형제와 같이**”라는 단어도 ‘**시모르포스**’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성화가 아니라 영화를 뜻합니다.

또한, 더글라스 무는 이와 병행을 이루는 문구에 나오는 “**말아들**”이라는 단어가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아들”은 부활과 관계가 깊은데, 골로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부활과 관련시키며 ‘**먼저 나신 자**’ 즉 말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은 재림 날 우리가 부활할 때 일어난다는 무의 주장이 옳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영화와만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머스 슈라이너는 그 일을 영화로 보면서도 현재의 성화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둘 다 궁극적으로는 영화를 뜻함이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본문과 가장 일치하는 에베소서 1장 4-5절도 연구해보아야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4)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5).”

둘 다 예정이 주제일 뿐 아니라 예정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와 이 구절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가 내용상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문구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성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라는 전치사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미래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른 구절들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엡 5:27, 골 1:22-23). 그러므로 이 문구가 성화를 포함하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영화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뿐 아니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도 단지 성화가 아니라 영화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 궁극적으로 영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29절은 목적을 보여준 것이고 30절은 그 성취를 보여준 것이므로,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를 양자 됨이 아니라 영화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영화가 영화밖에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30절은 과거시제인데도 무리하게 영화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구절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여러 세기 동안 우겨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저는 문자 내면의

문맥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통해, 영화뿐 아니라 양자 됨도 영화롭게 됨을 뜻한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두 개가 되었고 칼빈주의자들 처럼 영화로 해석할 이유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영화를 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자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 23절에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화가 곧 양자 됨입니다. 또, 칭의처럼 양자 됨도 이미와 아직의 구조입니다(롬 8:14-15, 23). 그래서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 영화가 아니라 얼마든지 양자 됨을 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9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예정의 목적인 영화 즉 아직의 양자 됨을 쓴 것이고(미래시제), 30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는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인 이미의 양자 됨(과거시제)을 뜻합니다. 이것을 본문과 내용이 온전히 일치하는 에베소서 1장 4-5절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은 미래시제이고 5절은 과거시제입니다. 게다가, 로마서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30)” 와 겹쳐지는 에베소서의 부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가 영화가 아니라 양자 됨을 뜻한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29절과 1장 4절의 뒷부분의 원어가 과거시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부정사는 문맥이 시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해석한 대로 두 구절이 영화에 대한 것이므로 미래시제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아 마쉬아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가 됩니다.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정의 목적이 자녀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정의 목적에 대해 쓴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 됨이 아니라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롬 8:23)” 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거저 주시는(6절)” 의 원어가 과거시제라는 것에 근거하여 5절의 “자기의 아들들” 을 이미 일어난 양자 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신” 이라고 과거시제를 쓴 이유가 4-5절이 예정에 대한 말씀들이고 예정도 과거에 된 것이

기 때문에 단지 예정을 가리켜서 과거시제를 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7)”가 과거시제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11절 이하 14절에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이 이미 얻은 구원(과거)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 구절(7절)과 그 뒤의 더 넓은 문맥(11-14절)을 볼 때, 6절의 “거저 주신” 이 이미 얻은 구원을 뜻하고, 5절의 “자기의 아들들” 도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양자 됨을 뜻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의 병행에 근거해서 “영화롭게” 가 정확히 양자 됨을 뜻한다는 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한 저의 해석은 병행구절인 에베소서 1장 4-5절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확인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의 영광이 영화와 양자 됨 두 가지가 있음을 확증했습니다. 그런데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는 과거시제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아니라 양자 됨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칼빈의 견해가 틀렸고 저의 해석이 옳다는 것이 100% 드러났으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대한 해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양자 됨이고 양자 됨은 곧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궁극적인 양자됨을 누리기 위해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